

# 교육 관련 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 -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2부  
신성현 수석부장

### 1. 들어가며

청소년 인구의 감소<sup>1)</sup>,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다변화, 고등학교 다양화, 대학교 입시제도의 변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확산, SNS 및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등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 및 사회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정신건강,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태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슈도 학교현장, 언론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도한 사교육,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우울증 및 자살 등이 대표적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주로 참고한 자료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에서 수행한 조사 중 공개된 결과를 이용하였다.

###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 1) 청소년 행복감

2012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sup>2)</sup>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는 2007년 조

1)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한 9~24세 인구수는 2015년 961만 명에서 2020년 840만 명, 2040년 689만 명, 2060년 50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 2012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2012) 중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표본 수는 5,098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2,680명, 여학생은 2,418명, 초등학생은 1,206명, 중학생은 1,927명, 고등학생은 1,965명 이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6~7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사 이후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2007년 50.9점에서 2012년 59.2점으로 높아졌고, 행복감은 2007년 58.4점에서 2012년 62.6점으로 높아졌다.

<표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 연도 비교 (단위:점)

	2007	2008	2010	2012
사례수(명)	(6,002)	(2,140)	(2,268)	(5,098)
<b>삶의 만족도</b>	50.9	54.3	57.2	<b>59.2</b>
<b>행복도</b>	58.4	61.6	62.4	<b>62.6</b>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2012년 기준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모두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비교했을 때, 학업 부담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모두 낮았다.

<표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 2012년 (단위: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사례수(명)	(5,098)	(1,206)	(1,927)	(1,512)	(453)
<b>삶의 만족도</b>	59.2	80.6	64.4	53.4	56.7
<b>행복도</b>	62.6	81.2	66.5	58.6	59.9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청소년의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한국방정환재단)<sup>3)</sup>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OECD 평균을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2.5점이었다. 2010년 65.1점, 2011년 66.0점, 2012년 71.4점, 2013년 72.5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3> (OECD 평균을 100점 전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단위:점)

	2010	2011	2012	2013
사례수(명)	(5,437)	(6,410)	(5,000)	(7,104)
<b>주관적 행복지수</b>	65.1	66.0	71.4	<b>72.5</b>

출처: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이렇게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상승하였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가장 낮았다.

<표4> (OECD 평균을 100점 전제)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단위:점)

국가	주관적 행복지수	국가	주관적 행복지수
스페인	117.2	체코	101.5
네덜란드	114.2	포르투갈	100.5
그리스	111.8	노르웨이	100.3
이탈리아	107.3	아이슬란드	97.8
스위스	106.3	영국	97.1
오스트리아	105.6	덴마크	94.8
스웨덴	104.8	캐나다	93.7
미국	104.5	헝가리	88.7
아일랜드	103.9	폴란드	85.9
핀란드	102.2	벨기에	85.7
독일	102.0	<b>한국</b>	<b>72.5</b>
프랑스	101.8		

출처: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3)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2013)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7,104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3,805명, 여학생은 3,299명, 초등학생은 1,807명, 중학생은 2,656명, 고등학생은 2,641명 이었다. 조사방법은 우편을 통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한편 행복을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 초등학생은 화목한 가정, 건강, 자유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 자유, 성적향상, 고등학생은 돈, 성적향상, 화목한 가정의 순이었다. 청소년의 연령이 오를수록 화목한 가정을 응답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성적향상 및 돈을 응답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5> 행복을 위한 필요한 조건 (단위:%)

	사례수 (명)	화목한 가정	자유	성적 향상	돈	건강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자격증	종교	기타
<b>전체</b>	(7,104)	26.0	16.5	14.6	14.0	11.1	8.0	5.0	1.5	0.9	2.5
<b>초등학교</b>	(1,807)	<b>42.4</b>	<b>13.4</b>	7.1	7.8	<b>16.7</b>	5.4	2.5	2.1	0.9	1.8
<b>중학교</b>	(2,656)	<b>23.5</b>	<b>18.8</b>	<b>15.6</b>	13.5	9.6	10.5	5.0	0.8	0.8	1.7
<b>고등학교</b>	(2,641)	<b>17.2</b>	16.3	<b>18.6</b>	<b>18.9</b>	8.6	7.3	6.8	1.8	0.9	3.5

출처: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 2) 청소년 아침 식사, 수면 및 여가 시간

전체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27.2%)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 남학생(24.8%) 보다는 여학생(29.8%)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4).

<표6> 등교 전 아침 식사 여부 (단위:%)

		사례수 (명)	거의 하지 않는 편	보통 하지 않는 편	보통 하는 편	거의 매일 하는 편
전체		(10,351)	18.8	8.4	15.4	57.4
성별	남학생	(5,399)	16.7	8.1	15.9	59.2
	여학생	(4,951)	21.0	8.8	14.8	55.3
교급별	초등학교	(2,939)	11.4	6.7	14.0	68.0
	중학교	(3,624)	19.2	9.5	15.2	56.1
	일반/특목/자율고	(3,119)	21.2	8.1	17.1	53.7
	특성화고	(669)	37.5	12.2	15.4	34.9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2011년, 2013년 및 2014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아침을 먹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7> 등교 전 아침 식사 : '보통 + 거의 매일' 하는 편

	2011		2013		2014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초등학교	(3,374)	85.9	(2,817)	82.8	(2,939)	82.0
중학교	(3,082)	77.3	(3,267)	74.8	(3,624)	71.3
고등학교	(2,820)	71.5	(3,401)	69.5	(3,788)	67.2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2014)의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10,484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5,477명, 여학생은 5,007명, 초등학생은 2,975명, 중학생은 3,662명, 고등학생은 3,847명(일반/특목/자율고 3,166명, 특성화고 681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6~7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전체 청소년의 평일 기준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8분이었다. 초등학생은 8시간 29분, 중학생은 7시간 20분, (일반/특목/자율고) 고등학생은 5시간 46분으로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및 학원 수업 등 학업부담이 많은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적었다.

<표8> 평일 기준 수면 시간 (단위:%)

		사례수 (명)	5시간 미만	5~6 시간 미만	6~7 시간 미만	7~8 시간 미만	8~9 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수면시간
전체		(10,454)	5.6	16.2	20.3	24.6	21.8	11.6	7시간08분
성별	남학생	(5,461)	5.0	14.1	19.0	25.6	23.5	12.7	7시간15분
	여학생	(4,993)	6.2	18.6	21.7	23.4	19.8	10.3	7시간00분
교급별	초등학교	(2,966)	0.3	0.7	3.8	17.2	43.6	34.4	8시간29분
	중학교	(3,549)	1.3	6.0	20.9	42.0	24.7	4.9	7시간20분
	일반/특목/자율고	(3,161)	15.0	42.0	31.4	10.1	1.4	0.1	5시간46분
	특성화고	(678)	7.9	19.0	37.0	30.1	5.0	0.9	6시간24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평균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일반/특목/자율고) 고등학생에서 잠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73.0%)이 가장 높았다.

<표9>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전체	(10,439)	55.8	44.2
초등학교	(2,969)	37.3	62.7
중학교	(3,654)	53.9	46.1
일반/특목/자율고	(3,142)	73.0	27.0
특성화고	(674)	67.5	32.5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평일 기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8.0%)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1시간 미만(24.1%)의 순이었다. 학업 부담이 많은 (일반/특목/자율고) 고등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다.

<표10> 평일 기준 여가 시간 (단위:%)

	사례수 (명)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	(10,456)	24.1	28.0	17.1	13.7	7.9	9.2
초등학교	(2,968)	17.6	25.4	19.2	15.3	10.3	12.2
중학교	(3,647)	14.8	27.9	20.7	16.9	9.1	10.5
일반/특목/자율고	(3,163)	43.1	31.9	11.2	6.9	3.0	3.9
특성화고	(678)	13.9	21.2	16.5	21.1	13.5	13.8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 3) 청소년 휴대폰(스마트폰) 및 SNS 이용

청소년 10명 중 9명 정도(91.5%)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보유율(94.8%)이 남학생(88.3%) 보다 높았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36.2%에서 2013년 81.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5).

<표11> 청소년 휴대폰(스마트폰) 보유율 (단위:%)

		사례수 (명)	보유율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2011		(6,514)	90.1	53.9	36.2
2013		(10,062)	<b>91.5</b>	10.0	<b>81.5</b>
성별	남학생	(5,119)	88.3	10.4	77.9
	여학생	(4,943)	<b>94.8</b>	9.5	85.3
교급별	초등학교	(3,042)	85.8	13.6	72.2
	중학교	(3,510)	93.2	7.0	86.2
	고등학교	(3,510)	94.8	9.9	84.9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휴대폰 기능 중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26.7%)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게임(15.6%), 전화통화(14.8%)의 순이었다. 남학생은 게임, 채팅, 전화통화의 순으로 많이 이용 하였고, 여학생은 채팅, 음악듣기, 전화통화의 순이었다.

<표12> 휴대폰 이용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 1순위 기준 (단위:%)

	사례수 (명)	채팅	게임	전화 통화	음악 듣기	인터 넷	SNS	문자	사진 동영상	TV 시청	기타
전체	(10,062)	<b>26.7</b>	<b>15.6</b>	<b>14.8</b>	12.8	6.8	6.8	5.7	5.0	1.2	4.4
남학생	(5,119)	<b>19.5</b>	<b>25.2</b>	<b>17.1</b>	10.6	6.0	5.4	5.2	5.3	1.1	4.7
여학생	(4,943)	<b>33.6</b>	6.4	<b>12.6</b>	<b>15.0</b>	7.5	8.2	6.2	4.8	1.4	4.2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5)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2013)의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10,062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5,119명, 여학생은 4,943명, 초등학생은 3,042명, 중학생은 3,510명, 고등학생은 3,510명 이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한편, 휴대폰 기능 중 초등학생은 전화통화(26.9%) 및 게임(25.7%)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은 채팅(28.9%) 및 게임(17.6%), 고등학생은 채팅(32.6%) 및 음악듣기(17.1%)의 순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채팅 및 음악 듣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13> 휴대폰 이용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 1순위 기준 (단위:%)

	사례수 (명)	채팅	게임	전화 통화	음악 듣기	인터 넷	SNS	문자	사진 동영상	TV 시청	기타
전체	(10,062)	26.7	15.6	14.8	12.8	6.8	6.8	5.7	5.0	1.2	4.4
초등학교	(3,042)	16.4	<b>25.7</b>	<b>26.9</b>	7.2	3.0	4.0	5.2	6.3	1.5	3.7
중학교	(3,510)	<b>28.9</b>	<b>17.6</b>	10.6	13.0	8.0	5.9	4.3	4.9	1.4	5.4
고등학교	(3,510)	<b>32.6</b>	5.9	9.4	<b>17.1</b>	8.5	10.0	7.5	4.2	0.8	4.1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전체 청소년 중 77.1%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학생(81.7%)이 남학생(72.6%) 보다 SNS 계정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았다. SNS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5.5%인 가운데 여학생(53.5%)이 남학생(36.8%) 보다 높았다.

<표14> SNS 계정 소유 및 이용 빈도 (단위:%)

	사례수 (명)	SNS 계정 소유		SNS 이용 빈도(* SNS 계정 소유자 기준)					
		소유	미소유	이용 안함	주1회 미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전체	(10,062)	<b>77.1</b>	<b>22.9</b>	9.0	9.8	11.3	14.1	10.3	45.5
남학생	(5,119)	72.6	27.4	11.9	11.9	13.5	16.1	9.8	36.8
여학생	(4,943)	<b>81.7</b>	18.3	6.3	7.8	9.3	12.2	10.8	<b>53.5</b>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4) 청소년 사교육

전체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인 가운데 초등학생이 81.8%, 중학생이 69.5%, 일반계고 고등학생이 55.9% 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다(2013 사교육비조사, 통계청)6).

<표15> 사교육 참여율 : 학교급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사례수(여명)	(46,000)	(44,000)	(44,000)
<b>전체</b>	71.7	69.4	<b>68.8</b>
<b>초등학교</b>	84.6	80.9	<b>81.8</b>
<b>중학교</b>	71.0	70.6	69.5
<b>고등학교</b>	51.6	50.7	49.2
<b>일반계고</b>	58.7	57.6	55.9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교육비조사

교과 과목 중 영어(44.0%)와 수학(45.8%) 과목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초등학생은 예체능, 영어 및 수학, 중학생은 수학 및 영어, 일반계고 고등학생은 수학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표16> 사교육 참여율 : 주요 과목별 (단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취미교양
<b>전체</b> (n=44,000여명)	19.8	<b>44.0</b>	<b>45.8</b>	11.5	32.1
<b>초등학교</b>	26.6	<b>47.8</b>	<b>46.8</b>	13.7	<b>56.2</b>
<b>중학교</b>	19.8	<b>54.8</b>	<b>57.9</b>	16.5	17.3
<b>고등학교</b>	9.8	28.1	32.8	3.5	10.8
<b>일반계고</b>	11.5	32.9	<b>38.7</b>	4.2	11.5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교육비조사

6) 2013 사교육비조사(2013)의 조사규모 및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1,094개 학교의 학부모 약 44,000여명으로,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었다.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조사가 되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3~5월과 7~9월이었다. 사교육비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주요 과목 및 논술, 예체능 및 취미 교양, 취업 목적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표17> 사교육 참여율 : 가구소득 및 성적별 (단위:%)

		참여율
전체 (n=44,000여명)		68.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1.3
	100~200만원 미만	45.3
	200~300만원 미만	60.1
	300~400만원 미만	71.5
	400~500만원 미만	79.2
	500~600만원 미만	82.5
	600~700만원 미만	84.8
	700만원 이상	83.5
성적	상위 10% 이내	80.0
	10~30%	76.6
	31~60%	71.4
	61~80%	64.8
	하위 20% 이내	55.0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교육비조사

## 5) 청소년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청소년은 시험 및 성적과 같은 학업문제(55.3%)와 장래의 진로문제(43.9%)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이어서 외모(키, 몸매, 생김새),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선·후배와의 관계, 이성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sup>7)</sup>).

초등학생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업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외모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업문제(시험 및 성적)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이어서 진로문제, 외모, 부모님과의 관계 순이었다.

<표18>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명)	(9,402)	(3,157)	(3,260)	(2,985)
학업문제(시험, 성적)	55.3	27.5	62.3	77.0
진로문제(장래)	43.9	10.6	48.1	74.6
외모(키, 몸무게, 생김새)	37.6	21.3	41.2	51.2
부모님과의 관계	32.8	22.3	38.4	37.7
형제·자매와의 관계	25.6	28.3	28.3	19.8
심리건강	19.5	8.9	19.7	30.6
친구관계	18.4	13.6	20.4	21.4
신체건강	17.6	10.0	17.5	25.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5.8	7.1	15.0	26.0
선생님과의 관계	10.9	8.0	11.8	12.8
이성관계	10.0	5.9	10.4	13.8
선·후배와의 관계	5.7	7.0	5.7	4.3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2013)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9,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4,692명, 여학생은 4,710명, 초등학생은 3,157명, 중학생은 3,260명, 고등학생은 2,985명 이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7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청소년 중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응답 비율은 20.9%로, 남학생(14.2%) 보다는 여학생(27.5%)에서, 초등학생(15.1%) 보다는 중학생(23.9%) 및 고등학생(23.6%)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19>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전체	성별		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명)	(9,402)	(4,692)	(4,710)	(3,157)	(3,260)	(2,985)
생각해 본 적 있다	20.9	14.2	<b>27.5</b>	15.1	<b>23.9</b>	<b>23.6</b>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로는 학업 및 진로문제(38.5%)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정불화(25.0%)의 순이었다. 학습 부담이 많고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서 학업 및 진로 문제(50.6%)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20> (자살을 생각해 보았던 응답자 기준) 자살을 생각해 본 이유 (단위:%)

	사례수 (명)	학업 진로 문제	가정 불화	학교 폭력	경제 문제	이성 문제	외모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1,963)	<b>38.5</b>	<b>25.0</b>	6.2	2.4	2.3	2.2	1.3	18.6	3.5
초등학교	(478)	<b>19.5</b>	<b>27.8</b>	12.1	2.5	1.7	5.4	2.1	26.4	2.5
중학교	(780)	<b>39.2</b>	<b>26.2</b>	6.2	1.9	2.3	1.4	0.8	18.6	3.5
고등학교	(705)	<b>50.6</b>	<b>21.8</b>	2.3	2.8	2.8	0.9	1.3	13.3	4.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 6) 청소년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접촉

전체 응답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이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비율이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비 지속적으로 높았다(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sup>8)</sup>.

<표2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단위:%)

	12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14년 2차
사례수(명)	(139만)	(379만)	(364만)	(406만)	(456만)	(410만)
<b>피해 응답률</b>	12.3	8.5	2.2	1.9	1.4	1.2
<b>초등학교</b>	15.2	11.1	3.8	2.7	2.4	1.8
<b>중학교</b>	13.4	10.0	2.4	2.0	1.3	1.1
<b>고등학교</b>	5.7	4.2	0.9	0.9	0.6	0.6

주: 사례수는 전체 응답자 기준임

출처: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강제심부름(4.4%), 추행(4.0%)의 순이었다(중복응답 기준).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언어폭력이 높은 가운데, 남학생은 폭행, 스토킹, 금품갈취의 비율이 여학생 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표22> 학교폭력 피해 유형 : 중복응답 (단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추행
<b>전체</b> (n=48,000여명)	35.4	16.8	11.8	10.1	9.9	7.6	4.4	4.0
<b>남학생</b>	34.2	13.8	15.5	11.4	6.0	8.9	5.2	5.0
<b>여학생</b>	37.8	22.3	5.0	7.7	17.0	5.2	2.9	2.1

출처: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8) 2014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응답 표본 수는 410만 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9~10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였다.

청소년의 매체 이용 관련 유해환경 생애경험률은 컴퓨터 성인물(45.5%)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성인용 간행물(40.0%), 성인용 게임(32.3%), 성인용 영상물(27.5%),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26.9%),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23.5%), 온라인 사행성 게임(21.5%), 휴대폰 성인물(20.5%)의 순이었다.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sup>9)</sup>. 휴대폰 성인물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조사시기가 2012년으로 스마트폰의 확산이 덜 된 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업소 이용 관련 유해환경 생애경험률은 노래방(90.9%)과 PC방(85.8%)이 높았고, 이어서 전자오락실(60.6%), 만화방(29.9%), 멀티방/룸카페(24.4%), 성인용 주점(13.8%), 비디오/DVD방(12.3%)의 순이었다

<표23> 청소년 유해환경 생애경험률 : 매체 및 업소 이용 (단위:%)

		사례수(명)	유해환경 경험률
매체 이용	컴퓨터 성인물	(15,392)	45.5
	성인용 간행물	(15,347)	40.0
	성인용 게임	(15,358)	32.3
	성인용 영상물	(15,275)	27.5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15,306)	26.9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15,384)	23.5
	온라인 사행성 게임	(15,381)	21.5
	휴대폰 성인물	(15,342)	20.5
	이성 만남 전화번호	(15,387)	1.8
업소 이용	노래방	(15,349)	90.9
	PC방	(15,440)	85.8
	전자오락실	(14,891)	60.0
	만화방	(15,421)	29.9
	멀티방/룸카페	(15,399)	24.4
	성인용 주점	(15,414)	13.8
	비디오/DVD방	(15,184)	12.3
	성인용 무도장	(15,224)	1.9

출처: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9)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15,487명 이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8,221명, 여학생은 7,266명, 중학생은 7,622명, 고등학생은 7,865명 이었다.

## 7)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7%로 중학생 10명 중 1명 정도는 중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고등학생 10명 중 3~4명(33.3%)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sup>10)</sup>.

<표2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1,585)	(1,634)	(1,711)	(1,718)	(1,716)	(1,689)
경험 있다	3.4	5.8	10.7	19.0	28.4	33.3
경험 없다	96.6	94.2	89.3	81.0	71.6	66.7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아르바이트는 주로 친구 내지 지인(60.7%)를 통해 소개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알바몬 내지 알바천국 등의 인터넷 알바사이트(19.1%)를 통해 구한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친구 내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25>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경로 (단위:%)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사례수(명)	(1,158)	사례수(명)	(1,158)
친구 또는 지인 소개	60.7	생활정보지	0.8
인터넷 알바사이트	19.1	직업소개소	0.6
가족 또는 친척 소개	10.8	워크넷	0.5
업소 구인광고	3.6	기타	2.7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1.3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10)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2013)의 조사대상은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 수는 10,119명이었었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5,311명, 여학생은 4,808명, 중학생은 4,961명, 고등학생은 5,158명 이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7월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 위 자기기입식 조사였다.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로 음식점에서의 서빙(28.2%)과 전단지를 돌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일(24.2%)이 많았고, 이어서 뷔페 및 웨딩홀에서 안내 내지 서빙(13.1%)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음식점(뷔페, 패스트푸드점) 서빙 및 안내, 전단지 돌리기 및 스티커 붙이기, 편의점 점원 등의 단순 노동 성격의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고 있었다.

<표26> 최근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사례수(명)	(1,152)	사례수(명)	(1,152)
<b>음식점 서빙</b>	<b>28.2</b>	택배 짐 나르기	1.1
<b>전단지돌리기(스티커붙이기)</b>	<b>24.2</b>	사무업무 보조	1.0
뷔페, 웨딩홀 안내 및 서비	13.1	공장에서 노동	1.0
패스트푸드점 점원	7.4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0.8
편의점 점원	5.1	건설현장 노동	0.6
음식 오토바이 배달	2.4	놀이공원 도우미	0.4
상품(옷, 장신구) 판매	1.8	퀵서비스	0.2
카페 점원	1.7	노래방 점원	0.1
주유소 주유원	1.5	기타	8.1
PC방 점원	1.3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3. 맺으며 : 요약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2007년 이후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낮았다. 행복을 위한 필요한 조건에 대해 학년이 오를수록 화목한 가정을 응답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성적 향상 및 돈을 응답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전체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27.2%)가 등교 전에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가운데 2011년 이후 학교 가기 전 아침을 먹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한편, 평일 기준 청소년은 평균 7시간 8분을 자고 있었으며, 일반고·특목고·자율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5시간 46분으로 가장 짧았다.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정도는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10명 중 1명은 피쳐폰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명 중 9명(91.5%)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학생은 게임, 채팅, 전화통화의 순으로, 여학생은 채팅, 음악듣기, 전화통화의 순으로 휴대폰 기능을 이용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임 및 전화통화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채팅 및 음악듣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한편,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77.1%)는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계정을 갖고 있는 여학생 중 절반 이상(53.5%)이 매일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68.8%)는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초등학생(81.8%)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영어와 수학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생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에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은 시험 및 성적과 같은 학업문제와 장래의 진로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이어서 외모(키·몸매·생김새),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업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업문제(시험 및 성적), 진로문제, 외모, 부모님과의 관계 순이었다. 청소년 10명 중 2명(20.9%)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주요 이유는 학업 및 진로 문제와 가정 불화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2%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이어서 집단따돌림, 폭

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언어폭력이 높은 가운데, 남학생은 폭행 비율이,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및 사이버 괴롭힘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 10명 중 1명, 고등학생 10명 중 3명 정도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 주로 친구 내지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스티커붙이기), 뷔페 및 웨딩홀 안내, 패스트푸드점 점원과 같은 단순 노동 성격이 주를 이루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통계청(2013). 2013 사교육비조사.  
한국방정환재단(2013).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